

“진안 100년 미래, 군민과 완성”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3·6·9 정책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가 진안의 대전환을 이끌 3·6·9 공약이 담긴 최종 공약집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전 후보는 “이번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지난 민선 8기의 성과를 완성하고 진안의 향후 100년 기틀을 닦는 실행 가능한 마스터플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집의 핵심 키워드는 진안형 기본사회를 위한 군민기본권 보장, 부자 농촌 만들기 농촌경제 도약, 치유 특화도시로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6대 분야별 9개 내외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전 후보는 “진안형 기본사회”를 통해 군민이라면 누구나 주거, 의료, 교육 걱정 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 ‘가짜’ 아닌 진짜 기본사회 완성

전 후보는 복지 분야에서 ‘기본사회 재단’ 설립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을 태양광과 용담댐 유류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수익을 공공이 주도하여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자립 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진안형 평생 안심 주택’을 11개 읍·면으로 전면 확대하고, 교통 약자를 위해 ‘농여객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및 노인 전동차 등 의료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기본권 강화를 예고했다.

▲농업 : 제값 받는 ‘부자농촌’ 만들기 농촌경제 도약
농업 정책은 ‘생산’ 중심에서 ‘관료와 유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전 후보는 “진안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공공 컨트론타워로 구축하고, 대도시 직송 물류체계를 도입해 진안 농산물이 당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농업시설을 확충하고 농민들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 폭락 시 손실을 100% 보전하는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국인 농촌 인력 축소 확대,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단 창설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경제 & 교육 : 청년이 돌아오는 ‘활력 진안’
경제 분야에서는 진안IC 인근에 ‘진

안 투자 홍보관(IR Center)’을 설치해 기업 유치와 스마트 오피스를 결합한 경제 컨트론타워를 세운다.

교육 분야에서는 ‘365 열린 어린이집’ 운영과 소아과 병행 동행 서비스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초·중·고 통학비 무료화 및 드림 카드 지원액 상향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관광 & 행정: 세계적인 K-치유 메카

관광 분야에서는 용담호와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을 연계한 ‘진안고원치유단지’를 구축하고, 독일의 크나이프 요양 등 선진 치유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용담호의 수변구역해제 추가 확대와 대한민국 1호 국가호수공원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다.

행정 혁신으로는 ‘AI형 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야간보행자 사고 제로화를 위한 ‘반사 안전 팔찌’를 보급하여 군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군민 안전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전춘성 후보는 “지난 6년의 도전이 험로도 많았지만, 검증된 행정력과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진안 100년의 미래를 군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제1호 사업으로 ‘순잡고(GO) 안심하고(GO)! 어르신 전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 본격화

무주군, 어르신 전기 안전 손잡이 설치 추진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제1호 사업으로 ‘순잡고(GO)! 안심하고(GO)!’ 어르신 전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6월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낙상 위험이 큰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자립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6개 읍·면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00가구다.

총사업비 2156만 원은 전액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무주군은 지난 1월 세부계획 수립과 협의를 거쳐 전문 업체와 표준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설치 사업에 착수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고향사랑기부금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로 직접 연결되는 실질적 기부 선순환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구체적 사업을 직접 선택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무주군은 이번 어르신 전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사업 외에도 ‘무주연극 동아리 활성화 지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1호 사업은 어르신들의 주거 안전을 직접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햇빛소득마을 성공 이끌 전문 파트너 기업 모집

진안군은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 운영을 이끌어 나갈 전문 파트너 기업 구축에 나선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햇빛소득마을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할 ‘진안형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J-ReSCO) 동행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J-ReSCO는 ‘Jinan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의 약자로 기존 단순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설계·시공·감리는 물론 사후 운영관리(O&M), 행정사무 대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 파트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ReSCO 기업은 오는 12일 18시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진안군청 농촌협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선정 결과는 5월 15일까지 평가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번기 맞아 ‘농촌 일손 돕기 상황실’ 운영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촌 일손 돕기 상황실’을 운영한다.

매년 4~5월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발작물과 파수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일손 수요가 집중된다.

특히 고령농가와 여성농가의 경우 기계화 작업이 어려워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은 이러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봄철 영농 기간인 7월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기별·농가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일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을철 영농기간에도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농촌 일손 돕기 상황실은 농업정책과에 설치·운영되며, 일손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기관·단체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 여름학기 인재육성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 2026년 여름학기 인재육성사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군 인재육성사관학교는 여름·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학업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기

숙형 학원 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 기간은 여름방학인 7~8월과 겨울방학인 12~2월이다.

신청 자격은 학생과 보호자 중 1인의 주소가 모두 무주군에 있어야 하며 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 기준

상위 70% 이내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신청은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사무국이 위치한 무주군평생교육원 2층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향교, 충북 정경순 제례봉행 거행

장수군은 장수향교 정충북 비각 앞에서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장수향교 유림회원, 지역주민 4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정경순 제례봉행이 거행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수향교(전교 이경술)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임진왜란 당시 장수향교를 지켜낸 충북 정경순의 애국충절 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진행됐다.

제례에는 류지봉 장수군청 행정복지국장이 초헌관을, 한병태 장수문화원

장이 이헌관을, 이성송 유림이 종헌관을 맡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례의식을 봉행했다.

충북 정경순은 임진왜란 당시 향교 내 문묘 자림이로 장수에 침입한 왜적이 문묘에까지 이르자 문을 굳게 닫고 “단약 문에 들러거든 나의 목을 베고 달라”고 호통을 쳤다고 전해진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왜적들은 분성역물법(本性賊勿犯)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니 침범하지 말라!이라는 쪽지를 남기고 스스로 물러나 장수향교가 불



에 소실되지 않고 현재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이후 1846년(현종 12년) 정주서 장수현감은 정경순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호성충북정경순수명비’를 세웠으며, 장수군은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에 제례봉행을 이어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소통

장수군, 첫 만남 교류 워크숍 가져

장수군은 장수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 지역 내 청소년 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20여 명이 참여한 2026년 청소년참여기구 첫 만남 교류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간 소통과 교류를 넘어 실제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지역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워크숍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들이 함께하면서 각기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참여기구 발대식을 시작으로 워크숍 수어, 참여기구별 활동 방향 논의, 교류활동 및 자치교



육 등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참여기구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높이고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청소년들이 서로의 활동을 친밀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교류·자치교육 ‘우리가 만드는 아지트’는 아이스브레이킹과 가치탐색, 공간 개선 아이디어 도출, 활동 기획 등 참여형 프로그램은 참여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